

최초의 신문...개산정신 맥 잇기 '새기운'



실상사 역사전 칠불암에 선 기행단들은 수승한 불법에 매료돼 흠뻑하고 있다.



하안거 결재일 서울을 출발한 참선기행단은 5월30일 동국제일선원 칠불암에 도착, 참선으로 숙진의 번뇌를 씻고 있다.

없으나 한동안 두손이 훼손된 채로 봉안돼 왔다. 그러나 87년 복원불사하는 과정에서 철제 손이 발견되었고 이를 토대로 90년대 복원했다.

석조유물이 많은 실상사에는 보광전 앞에 위치한 삼층석탑(보물 37호)과 석등(보물 35호)을 비롯 창건주 증각대사 응도탑(보물 38호)과 탑비(보물 39호), 그의 제자 수철화상 능가보살탑(보물 33호)과 탑비(보물 34호) 등이 잘 보존돼 있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는 유물속에서 선의 진미를 맛보게 한다. 마치 선승들의 확고부동한 공안처럼.

실상사는 1천여년전 실상선문을 연 선승들의 선향을 머금고 넓은 마당 곳곳에 있는 조각들, 승가전문교육기관인 화엄학림 개설, 불교생명구원사상 회복을 위한 귀농학교 운영 등이 바로 그것.

실상사에는 요즘 개산정신을 잇는 불사로 새로운 중흥을 맞고 있다. 백장선원이 선택을 잇고 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승가상의 확립과 승공진작을 위한 출범한 선우도량, 승가전문교육기관인 화엄학림 개설, 불교생명구원사상 회복을 위한 귀농학교 운영 등이 바로 그것.

실상사문의 과거와 현재의 새로운 중흥이라는 역사적 마당에서 함께 한 기행단들은 구산선문이 복원돼 선이 생활화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발길을 옮겼다.

글=김종근 기자
(garnja@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nia.com)

개산조 홍척국사는 당 서당문하서 득도



신라 후기의 스님으로 실상산문 개창주. 현덕왕 때(809~825) 당나라로 건너가 혜능선맥 마조의 고제자였던 서당지장(西堂智藏)의 문하에서 선종의 진리와 법을 전해 받고 개달야 홍덕왕 1년(826년)에 귀국했다. 최치원이 지은 문경 봉암사의 지증대사탑의 비문에서 "북산에는 도의(道義)요, 남악에는 홍척(洪陟)"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홍척보다 5년 앞서 821년(현덕왕 13년)에 귀국한 도의는 실악산을 근거로 하여 신라의 북방에서 선법을 펴고 있었고, 홍척은 남쪽인 지리산에 자리잡고 활동하였다. 도의와 더불어 당시 남북을 대표하는 고승이었으며 우리나라 선불교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828년 지리산 실상사를 창건하였는데, 구산선문의 하나인 실상산문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경덕전등록> 권 11에 의하면 그의 법통을 이은 이로 홍척대왕과 선강태자가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왕족의 귀의를 받아 선종을 크게 날렸음을 알 수 있다.

문하에는 권운(片雲)·수철(秀徹)스님 등 제자가 1천여명이나 있다.

구산선문 참선기행

화두, 선문답, 선식, 선체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선불교용어다. 이처럼 선(禪)은 우리곁에 가까이 와 있지만 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는 많지 않다. 오히려 '선'을 건강요법이나 심비율 등으로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요즘 선불교가 전래된 최초 기행인 남원 실상선문을 찾아가는 참배객을 가습이 실려 있다.

하안거 결재일(5월 29일) 밤 11시 서울을 출발한 40여명의 참선기행단은 동국제일선원 지리산 칠불암(주지 통광)에 도착, 가부좌를 틀었다. 기행단들의 참선 실수는 어찌 결재에 들어간 남자들이 못지 않게 진지하다. 이어 쌍계사를 참배한

구산선문 참선기행단은 5월 30일 정오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에 도착했다. 지리산 주능선에서 뻗어 내려온 넓은 평지에 자리잡고 있는 실상사는 색다른 산사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참선기행단은 화엄학림 정당에 모여 주지 도법스

5월-실상산문

의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한국불교의 새로운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실상산문은 혼란스런 사회에 이상적인 삶과 정신을 제시하고 평등이란 새로운 사상적 대안으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선불교를 전래한 구법승들

828년 창건...부패된 사회에 이상적 삶 제시 선우도량·귀농학교 개설등 '선의 생활화'

남으로부터 실상산문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선종의 등장은 단순히 중국 선불교를 옮긴 처원이 아니라 신라말 고려초의 사

은 이론보다 마음의 직관과 일상성을 중시하는 대중적인 수행체계인 선에서 새로운 불교의 생명력을 보았던 것이다. 실상사는 신라 흥덕왕 3년(828)에 홍척(洪陟)국사가 무수무중심인법(無修無證心法)을 총지로 개창한 최초의 선종 기행이다. 창건 초에는 지리산이 산문의 개산조 홍척국사의 존칭인 '실상선



성보보물이 즐비한 실상사 경내 모습. 개산정신으로 21세기 새 불교를 준비하는 복원 발흥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상산문의 개산정신을 잇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실상사 스님들.

정국사'의 어려움을 따서 고려 초부터 실상사라고 부르게 됐다. 홍척국사 당시 실상사는 지금의 백장암 터에서 시작됐다. 그후 대중들이 많아지자 제2조사인 수철화상(817~893)이 지금의 실상사 자리로 옮겼다는 설이 전해 온다. 실상사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백장암은 창건연대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삼층석탑(국보 10호)과 석등(보물 40호), 청동은입사향로(보물 420호) 등의 유물만이 역사를 전하고 있을 뿐이다. 실상사의 산내암자로는 17여곳의 암자가 있었으나, 백장암 약수암 서진암이 현존하고 있다.

실상사는 대표적 광지가람이다. 사천왕문을 통해 아르막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경내로 들어서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1천여년이 지난 현재 실상사는 "석조물을 제외하고는 재 위치에 건립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주지스님의 말처럼 단출하다. 하지만 숙종 26년(1700) 침허조사에 의해 중창된 기록을 보면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수십동이나 즐비하게 자리잡았던 큰 절이었다. 이러한 많은 전각들은 고종 20년(1883) 화재로 요사채와 전각 3동만 남았다. 등장했던 실상사 규모를 보여주는 한 예로 발굴결과 드러난 황룡사 목탑과 비슷한 규모의 목탑지와 100여명이 넘는 강당지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엇보다 승광사(26점) 다음으로 많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당대 최고의 걸작품(14점)들을 보면 실상산문의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원주 지산스님은 보광전 극락전 약사전 등의 각 전각들을 소개했다. 지불(紙佛)이 모셔진 보광전을 지나 약사전 철조여래부처님 앞에 이르게 되면 저물머리 속여지는 오랜 신앙의 뿌리를 경험하게 된다. 개산당시 조성된 철조여래좌상(보물 41호)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쌍계사

불교음악 범패 본산지

하동 쌍계사는 불교음악 범패의 본산지. 진감국사가 중국에서 불교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와 명인들을 배출했다. 쌍계사는 범패 교육장 팔영주를 비롯 진감선사 대공탑비, 육조정상탑, 고색창연한 대웅전(보물 500호), 쌍계사 부도(보물 380호), 명부전 열의 마애석불 등이 있다.

칠불암

구들시조 아자방 유명

지리산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칠불암은 동국제일선원, 남방불교전래설의 시원지 등 따라붙는 이름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칠불암은 '아(亞)자' 방으로 유명하다. 한 번 불을 넣으면 안겨 기간동안(1백일)동안 식지 않는다는 아자방. 그래서 세인들은 칠불암 아자방을 구들문화의 출발지로 일컫는다.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재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AX : (02)705-5229